

# 몽골의 철릭(terlig:telig)과 고려 첩리(帖裏)의 대조 연구:

## 재료와 직조방식을 중심으로

김기선

단국대학교 몽골어과 연구교수

현재 우리 나라의 복식연구를 참조하면 '고려 정석가에 나타난 털릭은 몽골 어휘 Terlig의 몽골발음을 차용한 것이며 털릭이 구개음화되어 철릭이 되었고 철릭이 단모음화하여 철릭이 되었다'라 하여, 몽골어음의 terlig과 telig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허리에 가는 주름을 잡은 상하연철의 의복을 '텔릭'(테를릭)의 음역으로 해석되는 '철릭'의 범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몽골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고려의 '철릭'이란 음으로 불리울 수 있는 몽골의복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재료와 부위마다 치수가 전혀 다른 직조방식의 두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최해울(2001)의 논의에서도 언급된 'Terlig'이라 불리우는 'Cuba(uuji)debel-ün adali böged mangnug-tur quniyasu tatagsan-yi'로서 '마고자와 비슷하며 龍緞으로 만들고 주름이 잡힌 袍(debel)'이고, 둘째는 'Terlig'이라 발음하는 'kobunguntei urtu ogur debel', 즉 길이가 길고 안에 솜을 넣은 袍(debel)이다.

일반적으로 의복의 허리에 주름을 잡는 것은 각종 문헌과 회화자료에서 몽골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대의 기마용 및 회화에는 말을 탄 인물들이 허리에 주름이 있는 텔릭형 의복을 착용한 예가 자주 보이며, 텔릭은 주름잡힌 군복, 융복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18세기 이후의 서몽골 지역 여인복식 유물을 관찰하면, 허리에 주름이 없는 두루마기형의 여자복과 허리주름이 있는 상하연철형식의 여자복 모두 테를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몽골에서 출간된 새로운 자료를 보면 위에 언급한 두 종류의 철릭에 관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재료 및 부위별 치수까지 상세하

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상술한 첫 번째의 'terlig'에 관해 살펴보면, 마고자형에 龍緞, 주름이 잡힌 debel(deel:델) 형태라는 언급으로는 元대의 회화나 석인상, 또는 『집사』의 삽화에 묘사된 칸들이나 귀족들이 착용한 것으로, 어깨와 등부분에 龍紋을 올린 우임교령의 長袖衣와 같은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성실(1992)은 이를 참조하여 "Telig"을 우리의 첩리 형태로 규정하면서 '帖'은 tie, '里'는 li 음을 차용한 한자식 표기법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Terlig'과 관련하여, D. 바이에르(1994) 교수는 칸이나 귀족의 복식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힌 의복 중 半袖衣를 가리켜, 특정한 명칭은 없이 '델 위에 착용한 예복'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번째의 'terlig' 즉 kobunguntei urtu ogur debel(솜을 넣은 debel)에 대해서는 수미야바타르의 설에 따르면 여름에 입는 솜 없는 테를릭과 가을에 입는 솜 넣은 테를릭으로 다시 구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나라의 복식연구를 참조하면 '텔릭'이라는 발음 상으로 볼 때 이에 속하는 의복은, 첫째로 주름잡힌 텔릭으로서, 소매의 길이 차가 존재하더라도 허리에 주름을 잡은 것으로, 원대 칸들이 착용한 예복 형태로 대표되는 것과 둘째는 테를릭으로, 여름과 가을용의 겹옷으로 주름 유무에 관계 없이 안에 땀벌이요 재료를 댄 용도상으로서만 위의 두 종류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텔릭'의 정확한 기원에 관해서도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몽골 텔릭과 고려 철릭의 조형 고찰은 매우 흥미 있는 주제이다. 고려와 몽골의 철릭문화는 비슷하면서도 분명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